

2020년 7월 26일 “창세기의 사람들(3) 에녹과 라멕”(창 4:19-24; 5:21-24)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는데 데려가신 에녹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승천에 대한 언급과 함께 에녹의 주님과 동행에 주목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이 가르침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에녹의 삶의 배경

아담과 하와는 첫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했고, 가인은 떠났습니다. 가인이 정착하여 세운 성에서 태어난 후예들은 발전된 기술과 문명으로 세상을 주도하였지만 아담과 하와는 가인에게 소망을 걸지 않고 다른 씨를 기대하며 셋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창 3:15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길’ 아들을 기대하고 믿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고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높여드리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4:26).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5장에는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의 족보는 주로 역사의 어떤 변곡점을 시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5장 족보는 가인과 아벨의 비극적 이야기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부흥의 시대가 열렸음을 말해주고자 함입니다.

셋 이후로 여러 대가 흘러 에녹이 등장하고 그는 65세에 므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므두셀라는 969세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에녹은 므두셀라를 낳고 기르면서 영적 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므두셀라를 직역하면 ‘투창의 사람’인데,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내는지에 관해 에녹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에녹은 자기 아들이 죽을 때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므두셀라가 969세로 죽던 해(손주 노아가 600살일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났던 사실을 말입니다(7:6).

그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실 것을 구체적으로는 몰랐을지라도, 에녹은 다른 가치관과 세속방식을 추구한 가인의 후예들과 대립하면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중심이 되어 창조의 목적에 역행하면 하나님은 보응하실 것이라는 심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2] 에녹의 동행과 라멕의 패역

이와 같이 에녹은 심판을 두려워했지만 또한 교제하며 만난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사모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 (1)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와 목상이 삶에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는 기쁨을 넘어섭니다.
- (2) 그분이 자기 삶을 선하심과 사랑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믿고 의탁했습니다.
- (3)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삶의 마지막 순간 너머 영원히 책임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는 삶은 말과 성품과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기를 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과 말씀 목상에 애쓰게 됩니다. 반면 볼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부인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 대한 정당화만 강해집니다. 쉬운 말로, 고집이 세어집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나의 백성이 고집이 세어서’ 심판하시게 된다는 결말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인 라멕은 자기 고집에 더하여 힘을 세도하는 자였습니다. 가인의 성은 누구든 힘을 있어야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다고 믿는 곳입니다. 사랑은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믿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성에서는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음을 말하기 위해 라멕을 부각시켰습니다. 라멕과 같은 세속적 정신세계와 성품과 방식을 가진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심판이 있어야만 참되고 선한 창조의 세계를 유지하고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3] 동행과 승천

주님과 동행의 삶은 기계적이지 않고, 강압적이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한다고 저절로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누가 하라고 해서, 또는 유혹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점수나 보이는 업적으로 동기부여하는 세속적 교육 방식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배우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며, 우리의 100%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주시는 주님의 성품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주님이 100% 은혜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자발적으로 결단할 때만 하늘의 축복의 진위를 알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신앙 생활을 위해 권면 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창조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익혀지다 보면 어느 새 내가 죽지 않고 승천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주님과 동행의 삶을 더 사모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맺음>

예녹의 주님과의 동행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의식했지만 그것을 넘어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깊어지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승천의 소망을 넘어선 동행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예녹의 동행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세요. 나는 주님과 어떤 특징을 갖는 동행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2.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주님과 동행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